

변화하는 대입환경, 흔들림 없이 지원

2026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출범... 총 125명 구성

특별전형 분석팀 신설... 대학별 세분화된 특별전형 분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창조미래 시정각실에서 2026년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단위학교가 변화하는 대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돌입했다.

2026년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조창형 교사(고창북고)를 단장으로 98명의 진학전문교사와 자문위원(3명), 권역별 진학부장 협의체(대의협력팀, 20명), 업무팀(4명)을 포함해 총 12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비해 전형 분석 기능과 단위학교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특별전형 분석팀을 신설했다. 특별전형 분석팀은 지역인재 전형,

사회통합전형 고른기회전형 등 대학별로 세분화된 특별전형을 심층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대내 고교에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특별전형 분석팀을 비롯해 △연수 및 현장지원팀 △자료개발팀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 △수능전형 연구팀 △대입 진로진학상담팀 △대외협력팀으로 운영되며, 2027학년도 대입 진학지도 정보 및 전략 하브 역할을 하게 된다.

대입 진로진학상담팀은 6개 지역 진로진학상담센터와 14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대면·화상 진학상담을 운영하고 고3 대상 수시·정시 집중 상담, 계열별·전형별 종합 컨설팅 등 현장 맞춤형 진학지도도 지원한다.



도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발대식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미래 시정각실에서 2026년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 연구팀과 수능전형 연구팀은 각각의 대입전형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진학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자료개발팀은 다양한 대학별 전형자료를 수집·분석해 대학 진학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사용 진학지도 매뉴얼을 포함해 총 11종의 진학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2026년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단장과 팀장을 새롭게 선임하는 등 조직의 역동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그간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내 모든 학생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대입진학지도도를 받을 수 있도록 대입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민주진보단일후보추대위 후보 등록 철회”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전북 교육 개혁 위해 끝까지 노력”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민주진보단일후보추대위원회의 후보 등록을 철회했다.

천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민주진보단일후보추대위원회 후보 등록을 정중히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서거석 전 교육감의 부패와 독선적 행정에 맞서 민주진보 진영이 힘을 모아 전북 교육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소명으로 공정한 경선을 통한 단일후보 선출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께 등록했던 노병성 후보가 시뮬레이션 경선 구도가 사실상 단



독 후보 체제로 전환했고, 자신의 과거 활동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영 내부에 갈등과 분열이 나타난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이 상황에서 저의 참여가 더 이상의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숙고 끝에 후보 등록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12만여 명의 선출안단의 뜻으로 민주진보 전북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바 있으나 낙선했으며, 이후에도 그 책임을 잊지 않고 활동해왔다고 강조했다.

천 예비후보는 “비록 이번 교육개혁위원회 후보 등록은 철회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진보의 철학에 기반한 전북 교육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검증 앞둔 철회는 무책임... 해명하라”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남호 예비후보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단일후보 신청 철회와 관련해 “검증을 앞두고 철회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단일화 과정은 시작은 요란했지만 검증은 부실했고, 절차는 흔들렸다”며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민주진보 성향 후보를 단일 추대해 전북교육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해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노병성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후보로 등록한 이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3월 중 단일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일 노 대표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천 교수 단독 검증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 의견이 엇갈렸고, 이후 천 교수가 입후보를 철회하면서 추대 절차가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이 예비후보는 천 교수가 그동안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표방해왔으나 칼럼과 저서 표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자 명확한 해명



없이 철회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리할 때는 특정 진영의 가치를 내세우고, 불리할 때는 정체성과 거리를 두는 태도로는 전북 교육의 미래를 맡기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감당하지 못한 것은 공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주교대에도 집필물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날 시와 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필요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전북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산업 인재 진화 체계 통합 설계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훈 기자

사라진 도시 성벽, 가상 복원으로 되찾다

전주대, 118년 만에 '전주부성' 이미지 복원

전주대학교(총장 류두원)는 역사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게임콘텐츠학과(유형섭 교수), 건축학과(김준영 교수)가 참여한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조선 시대 전주를 둘러싼 거대한 도시 성벽인 전주부성의 이미지를 발굴·확보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상 복원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주대학교 RISE 사업단과 실감미디어디지털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지원으로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고문헌 자료와 사진 열서, 현장 실사 등을 종합 분석해 디지털 3D 복원과 영상 콘텐츠 제작까지 이어진 결과다.

1908년 철거 이후 118년 만의 복원... 동·서·북문 이미지 최초 공개

전주부성은 1908년경 철거 당시 남문만 남아남남 남겨진 채 사라졌으며, 동문·서문·북문의 정확한 이미지는 오랜 기간 확인되지 못한 상태였다.

전환점은 2024년 6월이었다.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이정유 교수는 군사의 역사연구자 조결 선생님으로부터 일부분 전주부성 사진이 존재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후 일부의 대학 도서관과 국공립 박물관을 차례로 조사한 끝에 오사키의 재일한



전주대학교가 가상 복원 성공시킨 전주부성 서문(사진 왼쪽)과 북문(오른쪽).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학생·지역이 함께 지역 역사 되살려

오늘 밤 10시 KBS 다큐 인사이트서 방영

국인 열서 수집가 고성익 선생이 관련 열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자료는 이후 부안의 국립사민금간박물관으로 이관되었고 박물관의 현소로 이미지 확보에 성공했다.

학과 간 협업으로 완성된 '사라진 성곽 복원' 프로젝트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사라진 성곽을 복원하다' 프로젝트팀은 학과 간 협업을 통해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역사콘텐츠학과는 고문헌 분석과 스토리텔링을 맡았고 건축학과는 3D 모델링과 프린팅을, 게임콘텐츠학과는 AI 기반 영상 복원을 담당했다.

특히 동문을 중심으로 한 3D 복원은 단순한 건축물 재현을 넘어, 전주부성을 배경으로 펼쳐졌던 역사적

장면들을 영상 콘텐츠로 되살렸다. '춘향전' 속 임행아사 이용과 전주부성, 한국 첫 순교자, 동학농민혁명, 미국 남장로교 소속 7인의 선교사 1919년 3·13 만세운동 등 지역의 기억을 입체적으로 담아내 복원의 의미를 확장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대학생의 힘으로 지역 역사 되살린다' 이번 프로젝트는 교수와 학생뿐 아니라 전주시청 공무원, 지역 역사학자 시미 등 지역사회 복원을 열망해 온 이들의 협력 속에서 완성됐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임콘텐츠학과 유형섭 교수는 “이미지 자료와 제한된 역사자료만으로 AI를 활용해 복원하는 작업은 매우 힘들었으나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프로젝트 책임자인 이정유 교수는 “대학생의 역

량으로 시도한 복원이기에 아직 서문과 북문의 완전한 복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학생들의 힘으로 지역의 사라진 역사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서문·북문은 물론 일부 복원에 그친 전라지역의 완전 복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으로 만난다... KBS 다큐 인사이트 2월 26일 방영

사라진 성곽을 되찾는 여정은 이제 방송을 통해 시간들과 만난다. 복원 과정의 일부는 26일 밤 10시 한국방송공사(KBS)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다큐 인사이트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전주부성 복원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을 넘어, 지역의 기억을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전환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라진 성곽에 이제 디지털 공간 속에서 다시 서 있으며, 그 복원의 중심에는 지역 대학과 청년들이 있었다. /김재훈 기자

도,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3년 연속 공모 선정

올해 국비 포함 총 1억2000만원 투입... 디지털 소외계층 위한 맞춤형 교육 기반 다져

지자체·대학·기업 협력... 금융 문해·디지털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진흥원)은 교육부 주관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2024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며 도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고 밝혔다.

전북지자체는 2024년과 2025년 총 1억5,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8,000만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며 공모에 선정돼 도내 디지털 문해교육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하나로 뭉친 강력한 협력 체계가 핵심이다. 특히 전북은행은 실제 은행 환경을 구현한 이동형 금융 교육 인프라 '속 버스'를 지원하여 도내 곳곳을 찾아가는 실천형 금융 문해교육을 전담할 계획이다.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대

학의 전문 자원으로 대거 투입된다. 전북대학교는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는 키오스크 활용을 돕기 위해 교육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며, 호원대학교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과 함께 중장년층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및 관리에 힘을 보탠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일상 금융 용어 및 ATM 활용을 익히는 '찾아가는 금융 문해'를 비롯해 스마트폰 기초와 이동 수단 예매 등을 다루는 '생활 속 디지털 길잡이', 그리고 VR과 닌텐도 등 최신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체험교실'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지난해 학습 수준에 따른 단계별 수업 중심으로 운영했다면 올해는 금융·이동·생활 등 주제별 프로그램

으로 재구성하여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교육이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자립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학습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소그룹 맞춤형 수업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현용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이번 협업 모델을 통해 전북도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 '2026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안오봉)가 지역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기업 육성에 나섰다.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 교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북대는 지역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우수 창업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초기 기업을 발굴·지원한다. 선정 시기에는 평균 4,500만원의 사업과 자금이 지원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스포츠산업 대응자금을 통해 맞춤형 창업 교육과 기업 성장 단계별 교육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전북대는 오는 3월 중 참여기업 13개사를 선정해 AI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제품 속성 분석, 해외 판로 개척, 투자 유치 연계 전문가 1대1 카운슬링 등 전방위적 창업 지원을 추진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전·편입학 등 시행계획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기존 명목화 △중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관련 법령 및 규정 현행화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교육제 시행 이후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전학 허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고등학생은 전학 이전의 이수 학점과 전학 이후 학교 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을 합산해 해당 학교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아울러 중학교 전학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학부모와 교직원 부담을 덜고자 했다. 부모의 별거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대신 전학을 신청한 부 또는 모의 '사유서 및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포스티유 가입국 및 재외 한국학교 현황 등을 최신화해 귀국 학생의 해외에서의 학습 이력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 1학년생 적응 위한 자료 보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돕기 위한 '빛나는 1학년이 될래요'를 제작·보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아이들이 학교를 두려운 곳'이 아닌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해 입학 초기 적응 활동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하고, 유치

원 누리과정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유·초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관계를 배우고 규칙을 이해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민중이 자료에는 친구와 인사하고 소개하기, 우리 교실 약속 만들기, 기본생활습관 기르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감정 표현과 공감 활동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았다. /오상근 기자